

보도자료

2010년 8월 27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750-2250)
전파방송관리과 이윤호 사무관(☎750-2253) lyho@kcc.go.kr**베트남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 개국,
내년초 상용서비스 전환 예정**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상파DMB 시범서비스가 이집트(08년), 말레이시아(08년), 캄보디아(09년)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실시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지상파 DMB 시스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시장의 세계 진출 기회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월 27일 베트남 국영방송사(VTV, Vietnam Television)가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국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베트남 정부 및 사업자(VTV)의 T-DMB 상용화 전환의지가 확고하고 시범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방송시스템 구축 환경의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베트남을 최종 지원 대상국으로 결정했으며, 6월부터 시범서비스 실시를 위해 주관사인 베트남 국영방송국 VTV에 T-DMB방송을 위한 시스템설치 및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전체인구가 약 8500만명에 달하는 베트남은 방송통신서비스 등 신기술, 신문화 수용도가 높은 28세 이하 인구가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동단말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T-DMB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이다.

이 날 개국식 행사에는 레 남 탕 베트남 정보통신부 1차관, 쩌 득 라이 2차관, 부 반 히엔 VTV 사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경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등 양국의 방송관련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베트남 국영방송사(VTV)는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하노이에서 2개의 비디오채널과 1개의 비주얼라디오 채널로 향후 1년간 지상파DMB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 개국식 행사를 주최한 베트남 레 남 탕 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한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초까지 본방송 전환을 목표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경자 부위원장은 “베트남의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는 동남아권의 모바일방송 확산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베트남과 방송 콘텐츠 및 기술교류를 통해 지상파DMB 본방송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는 지난 10월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과 레 조안 헵(Le Doan Hop)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이 체결한 「한·베 지상파 DMB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베트남 정부와 활발히 협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끝.